“삼보 대종사여, 큰 원력으로 다시 오소서”

5월 29일 월정사서 영결 · 다비
27일 법납 61년으로 원적 들어
10 · 27법난 고초…월남서 부상
상이연금 30억원 월정사에 기부
현해 스님 “고초에도 정진 귀감”

진부 월정사=이동격 강원지사장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원로이자 영월 법흥사 주지 대웅당 삼보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5월 29일 월정사 화엄루와 경내 일원에서 산중장으로 엄수됐다. 사진은 다비식 모습.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원로이자 영월 법흥사 주지인 대웅당 삼보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5월 29일 월정사 화엄루와 경내 일원에서 산중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월정사 조실 현해 스님, 등명낙가사 회주 청우 스님,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도후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월정사 동당 각수 스님,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등 종단 원로와 대덕 스님, 삼보 스님의 속가 가족들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결식 전날인 28일 화엄루에 마련된 삼보 스님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의 글을 남겼다.

현해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온갖 고초에도 굴하지 않고 수행 정진하신 스님”이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반락을 누리시길 서원한다”고 애도했다.

현각 스님은 행장 소개를 통해 삼보 대종사의 수행 여정과 삶의 족적을 담담히 되새겼다. 현각 스님은 수행자의 길 위에서 겪은 고난과 수행, 그리고 오대산 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을 소개하며 스님의 삶을 회고했다.

자광 스님은 영결사에서 “종정 스님은 물론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 애도한다”며 “오래 머물지 말고 잠시 쉬셨다가 속환사바 하시어 중생 제도를 계속해주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문도 대표로 추도문을 낭독한 정념 스님은 “한국전쟁 이후 오대산 도량 복원의 역사는 오롯이 스님의 원력이었다”고 회고하며 “스님의 큰 원력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디 큰 원력으로 다시 오셔서 후학들의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발원했다.

영결식을 마친 뒤 삼보 스님의 법구는 인로왕번을 앞세운 만장행렬과 함께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지나 다비장으로 운구됐다. 사부대중은 염불 속에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연화대에 안치된 법구는 “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는 거화와 함께 다비에 들어갔으며, 사부대중은 합장한 채 적멸의 길에 든 스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다.

16세에 당대 최고 학승 탄허 스님(1913~1983)을 은사로 출가한 삼보 스님은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았던 굴곡진 삶을 살았다. 1970년 베트남 전쟁에 해병대원으로 참전했던 삼보 스님은 작전 중 지뢰를 밟아 큰 부상을 입고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오대산 상원사 주지로 재직하던 1980년에는 신군부가 주도한 한국불교 최대 법난인 ‘10·27법난’ 당시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다. 2005년에는 10·27법난의 진상 규명을 정부에 촉구하며 자해를 시도해 불교계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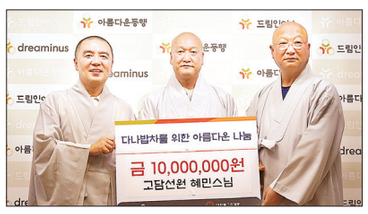
삼보 스님은 은사의 영향으로 승가교육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스님은 2020년 5월 16일 탄허 대종사 37주기 다례재에서 교육불사기금 30억원을 월정사에 쾌척했다. 이는 베트남 전쟁 참전 당시 지뢰를 밟아 다쳐 받은 상이연금을 5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이 기금은 지난해 5월 21일 월정사 승려복지시설 ‘승가림’ 개원으로 이어졌다.

5대 적멸보궁 중 하나인 영월 법흥사 주지로 주석하며 포교와 도량 수호에 힘쓴 삼보 스님은 임종게를 통해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사자의 우렁찬 포효로 사바세계를 흔들고(獅子吼聲震娑婆), 연화봉 아래 푸른 소나무는 날 저물어도 홀로 푸르구나(蓮花峰下松自靑). 평생의 의리와 갑옥(수행) 다 벗어던지고 걸림 없이 쉬노니(義甲放休無伴侶), 바랑 밖의 먼 창해가 부질없이 깊구나(網外蒼海空自深).”

혜민 스님, ‘다나 밥차’에 1000만원

6월 2일, 아름다운동행에 기탁
3년째 봉사…누적 2억원 기부



서울 고담선원 주지 혜민 스님이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혜민 스님은 6월 2일 서울 전법회관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상임이사 법오 스님) 사무처에서 상임이사 법오 스님에게 ‘다나 밥차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기금은 혜민 스님의 저서 〈생각이 쉬는 사이〉 인세로 마련됐으며, 사단법인 다함께나누는세상(대표 탄경 스님, 이하 다나)에 전달돼 밥차 운영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다나는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밥차’ 나눔 활동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200인분의 음식을 배식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는 서울 인근 지하도를 순회하며 도시락 80인분을 지원한다.

3년째 다나에서 밥차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혜민 스님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며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며 “인세를 온전히 기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돼 감사하다. 꾸준히 사회에 관심을 갖고 나누며 살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다나 대표 탄경 스님은 “혜민 스님께서 기부 이외에 봉사도 3년째 계속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부처님께서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헤아렸듯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더 마음을 내겠다”고 화답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혜민 스님은 2012년부터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기금 등 2억원 상당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현희 기자

“불자는 채식·절제로 기후 위기 대응해야”

조계종 환경위, 6월 2일 성명
생활밀착형 실천 운동 제안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진각 스님, 이하 환경위)가 세계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생명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위는 6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과 생명전환을 위한 불교행동을 제안했다. 환경위는 “기후위기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존재라는 착각, 끝없는 성장과 소비를 추구해 온 삶의 방식에서 비롯됐다”며 “인간의 편리와 풍요가 확대될수록 자연은 훼손되고, 그 결과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간과 자연, 사회와 생명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가 자연을 해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이며, 지구의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이라며 “성장과 경쟁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순환과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단순 소박한 삶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사찰과 불자를 향해 “사찰은 수행 공간인 동시에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에너지 절약과 자원 순환, 탄소배출을 줄이는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며 “불자의 수행은 개인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찰과 불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환경실천 운동도 제안했다. ‘탄소를 비우고, 생명을 살리는 생태 재일 만들기’ 운동은 사찰에서 봉행하는 재일법회와 연계해 월 1회 또는 주 1회 작은 환경실천을 생활화하도록 구성됐다.

실천 과제로는 △초하루(음력 1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 △약사재일(음력 8일) 아프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하는 날 △보름(음력 15일) 1시간 전등 끄기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날 △지장재일(음력 18일) 채식을 실천하는 날 △관음재일(음력 24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날 등을 제시했다. 이현희 기자

라오스 환아에 ‘자비나눔’ 응원

조계종복지재단, 라오스 병원 방문
2000만원 상당 선물 전달 위로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6월 1일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 난치병으로 치료 중인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자비나눔 선물을 전달했다.

어린이날을 맞은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한국 불교계의 따뜻한 자비 나눔이 전해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은 6월 1일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 난치병으로 치료 중인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자비나눔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도륜 스님은 환아들에게 “지금 비록 몸이 아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병마와 씩씩하게 싸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용기가 빛나고 있다”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도륜 스님은 “조계종 차원에서도 라오스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단과 라오스 정부 간 MOU도 연장돼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싸야봉 원장은 “재단의 꾸준한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라오스 정부와 국립아동병원, 재단 라오스 지부가 협력해 MOU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재단은 옷과 학용품, 색연필, 과자 등 간식이 담긴 2000만원 상당의 어린이날 자비나눔 선물을 환아들에게 전달했다. 선물을 받은 미싸이(14·남) 어린이는 “지금은 몸이 아프지만 빨리 회복해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싶다”며 “선물을 받아 정말 기쁘다”고 환한 미소를 보였다.

어린이날 행사 다음 날인 6월 2일에는 도륜 스님이 직접 난치병 어린이 가정을 방문해 위로를 전했다. 스님은 비엔티안도 쏨싸마이 마을의 싸콩(10·남) 어린이와 참파마을의 씨티싹(12·남) 어린이를 찾아 “병을 잘 이겨내고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수호정사, 봉축법회

5월 24일, 군장병 격려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군법당 호국수호정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24일 봉축법회를 봉행하고 불자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을 응원했다.

법요식에는 군간부 및 불자 장병을 비롯해 법회를 주관한 법운정사 주지 법운 스님(관악불교사암연합회장)과 법운정사 신도회, 동산반야회, 이웃을 돕는 사람들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홈 커밍 데이’를 통해 최인묵 예비역 주임원사, 안성민 예비역 병장 가족 등 전역한 불자 장병들도 함께하며 후배 장병들을 격려했다.

법운정사, 광림선원, 동산반야회는 특별간식 840여 세트를 마련해 따뜻한 정을 나눴다. 박지운 기자



거창 붓다선원, 제4기 단기 출가학교 회향

5월 1~31일, 2명 정식 출가도
진경 스님 “바른 행복 향해”



한 달간 진행된 출가학교에서 총 13명이 전 과정을 수료한 가운데 2명은 정식 출가를 선택했다.

거창 붓다선원(선원장 진경 스님)이 5월 한 달간 운영한 단기 출가학교가 수행과 발원의 결실을 맺으며 회향했다.

붓다선원은 5월 31일 선원 내에서 ‘제4기 단기 출가학교’ 회향식을 봉행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13명(여 행자 9명, 남 행자 4명)이 참여해 전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정식 출가를 선택했다.

이번 단기 출가학교는 부처님의 정법을 통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자들은 부처님의 생애와 10가지 공덕행 강의, 선농 수행, 스님들과의 대화 등 총 11가지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수행의 기초를 다졌다. 또 초기경전 독경과 부처님 오신날 탁발 체험, 맨발 걷기 명상, 숨 요가, 발우공양 등 다양한 실천 수행도 이어갔다. 전체 일정 동참이 어려운 대중을 위한 일시 참가 과정도 함께 운영해 보다 많은 이들이 수행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마지막 일주일에는 이전 기수 수료생들을 위한 재참여 기회도 마련됐다. 1기 졸업생인 아버지가 4기 참가자인 딸과 함께 행자이자 도반으로 수행에 동참해 나란히 정진하며 세대를 잇는 수행 인연을 보여주기도 했다.

회향식에서 선원장 진경 스님은 한 달간 정진한 행자들을 격려하며 수행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진경 스님은 “이번 출가체험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원인으로 괴롭게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라며 “오늘로 한 달간의 과정은 마무리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진정하고 바른 행복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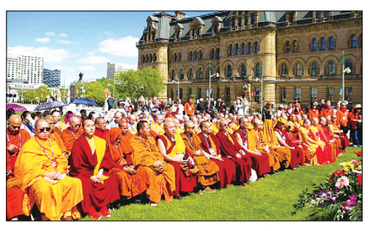
행자들은 “고요한 환경 속에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스님들의 법문과 습의 사 스님들의 여법한 언행을 보며 절로 신심과 환희심이 일어났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출가자의 삶을 체험하며 스님과 도반들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고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심을 증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발원문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탐진치를 내려놓기 위한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단기출가를 통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은 만큼 매 순간 선한 원인을 짓고 수행심이 물러서지 않도록 정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은호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캐나다 불교도 “5월을 불교유산의 달로”

5월 29일, 오타와 국회의사당서
‘국제 베삭데이’ 기념식 개최



캐나다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열린 봉축행사에 참여한 대중들. 사진 출처=카오솟 뉴스

캐나다 오타와에서 부처님오신날인 ‘국제 베삭데이’를 기념하기 위한 봉축행사가 봉행됐다. 오타와의 국회의사당 부지에서 열린 봉축행사에 참석한 캐나다 전역 56개 불교단체와 500명이 넘는 사부대중은 “5월을 캐나다 불교 유산의 달로 공식 인정해 달라”고 공식 촉구했다. 지난 29일 ‘카오솟 뉴스’등의 외신들은 캐나다 불교의 봉축 분위기를 전했다.

캐나다 불교문화유산의 달 행사 일환으로 개최된 이 행사에는 현재 캐나다에 전해진 상좌부, 대승, 금강승 불교의 대표자들과 함께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중국 출신의 이민자 불교도들과 캐나다 현지 불교도들이 함께 참석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각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차례로 각 전통에 따라 예불을 인도하고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욕 행사를 봉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캐나다 마크 카니 수상은 봉축행사를 축하하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평화, 화합의 메시지는 모든 캐나다인들과 국내 불교공동체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며 축사를 보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앞서 캐나다 국회의사당에서는 국제 베삭데이와 캐나다에서의 불교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연방정부가 매년 5월을 불교 문화유산의 달로 공식 선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